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세네갈

Republic of Senegal


2021년 8월 12일 | 책임연구원 김경하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세네갈
다카르



일반개황

면적 197천 km ² 	인구 17.218백만명 (2021) 	정치체제 공화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279.27억 달러 (2021) 	1인당GDP 1,622.02 달러 (2021) 	통화단위 CFA Franc (CFA Fr) 	환율(U\$기준) 541.50 (2021) 

- 아프리카 대륙 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세네갈은 한반도의 90% 면적의 국토와 약 1,722만 명('21년 전망치)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리타니(북), 말리(동), 기니비사우, 기니(남)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한편, 감비아는 세네갈 영토 내에 위치하고 있음.
- 세네갈 경제는 정부 주도의 국가·사회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과 농업 생산량 증대에 힘입어 동 사업이 시행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6~7%대의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였음.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경제성장률은 1% 미만으로 하락하였으나,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화되는 2023년부터는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중된 빈곤 및 실업, 그리고 정부의 이동 제한 조치는 2019년 대선 전 발생한 유력 야당 대표의 체포 사건과 함께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촉발하여 올해 3월까지 최소 5명이 시위 도중 군경과의 충돌로 사망하면서 수년 만에 최악의 소요사태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네갈은 여전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모범국으로 평가되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62. 10. 19 수교 (북한과는 1972. 9. 11)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80),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8),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8	2019	2020	주요품목
수 출	119,357	85,440	77,465	자동차, 섬유제품
수 입	59,267	49,038	40,744	냉동수산물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3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18건, 21,10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7.4	6.2	4.4	0.8	5.2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5	1.0	2.5	2.0
재정수지/GDP	-3.0	-3.7	-3.9	-6.4	-4.9

자료: IMF, EIU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경제전망은 긍정적

- 세네갈 경제는 국가·사회개발사업인 세네갈 부흥계획(Plan Senegal Emergent: PSE) 추진에 따른 산업 성장으로 2014~19년 평균 6%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 교통, 무역 부문의 침체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감소로 성장률이 0.8%로 급락하였음.
- 그러나 2021~22년에는 원유·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금광 부문의 투자 확대, 수출 등 외부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5% 수준의 경제성장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EIU와 IHS Markit은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3~25년 동안 연평균 9%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PSE 2기 5개년 계획의 일환인 인프라 투자, 농업 생산량 및 생산성 증가, 민간투자(에너지, 교통 인프라, 물류, 섬유, IT 분야)의 확대는 향후 세네갈의 중장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기관별 세네갈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구분	IMF	EIU	IHS Markit	Moody's	Fitch	S&P
2021년	3.7	3.0	3.8	4.0	4.0	4.0
2022년	5.5	5.8	5.5	6.0	6.3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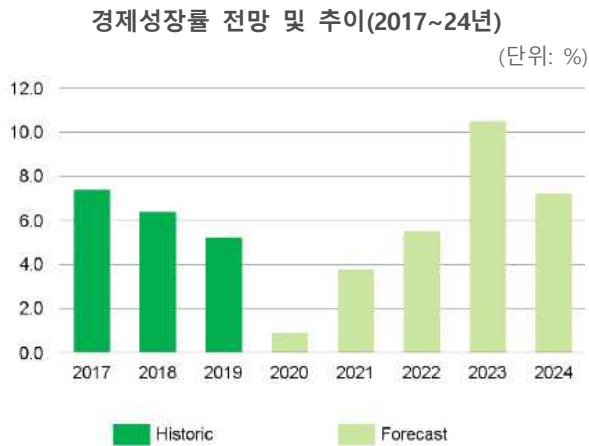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가격 하락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정부 주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과 자본재 수입으로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면서도, 세네갈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인근 국가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2017년 1.14%, 2018년 0.46%, 2019년 1.6%)을 유지해 왔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측면의 제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까지 상승하였으나, WAEMU(3%), 서아프리카(10.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14.8%)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

국내경제

- 2020년 말 곡물 생산량 증가로 인한 식품 가격의 하락으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022~25년에는 경기 회복과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수요 증대로 2%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IHS Markit



자료: IHS Markit

정부는 2035년 신흥시장국 도약을 목표로 한 세네갈 부흥계획(PSE) 2기를 시행 중

- 세네갈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사회 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SE)을 수립, 1기 5개년 계획(2014~18년)을 마무리하고 현재 2기 5개년 계획(2019~23년)을 시행 중임.
- 1기 5개년 계획은 전력망, 교통망 확충 등의 인프라 구축과 농업 개발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음.
- 현재 시행 중인 2기 5개년 계획은 1기 5개년 계획보다 더욱 포괄적인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부의 투자환경 조성을 통하여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코자 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9월 기존 PSE 2기의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고, 예산도 240억 달러에서 263억 달러로 확충함. 수정된 계획의 우선순위 분야는 국내 식량 공급 증대를 위한 농업 부문과 의료, 의약품, 교육, 산업 및 디지털 전환이며, 계획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제2차 우선행동계획(Priority Action Plan 2: PAP2)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 중임.
-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공요금 납부 예외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임.
- PSE 2기를 통하여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시행 예정인 바,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 및 가계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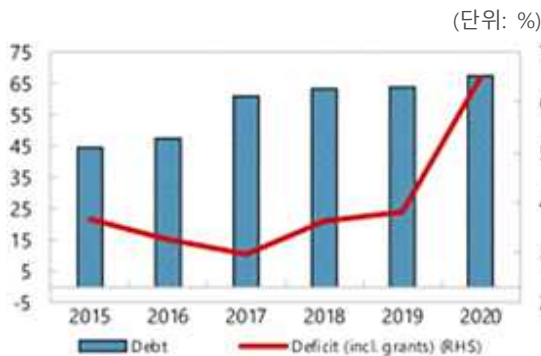
코로나19의 여파와 PSE 2기의 시행으로 공적채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지난 5년 간의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PSE와 코로나19로 인한 세수 감소 등으로 GDP 대비 공적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1년에는 약 71%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022~23년부터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 및 세수 증대와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해당 비율을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2017년 61%, 2018년 62%, 2019년 64%, 2020년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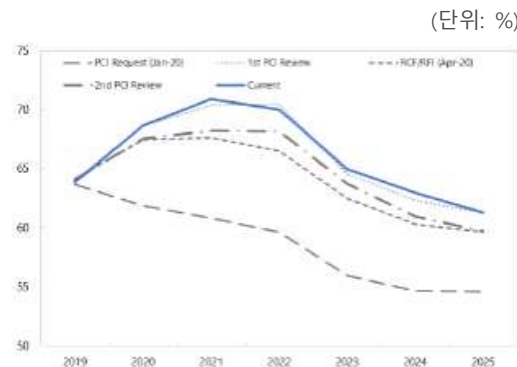
- 높은 공적채무 비중의 주요 원인으로 국가의 부채관리 역량 부족, 공공자금 운영의 비효율성, 세수 기반 부족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 등이 지적됨.
- 국가공적채무위원회(The National Public Debt Committee: CNDP)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21~23년 중기 채무전략을 채택하여 주요 SOE 투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이러한 공공부채 감사는 SOE 부채에 대한 관리 능력과 자금 수요 예측 관련 당국의 역량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됨.
- 원유·천연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천연자원 수익이 반영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3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임.

GDP 대비 공적채무 및 적자 비중(2015~20년)



자료: IMF

GDP 대비 공적채무 비중 전망 및 추이(2019~25년)



자료: 세네갈 당국,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상수지	-1,526	-2,215	-2,052	-2,932	-2,721
경상수지/GDP	-7.3	-9.6	-8.8	-12.0	-9.8
상품수지	-2,702	-3,396	-3,180	-3,027	-3,097
상품수출	3,286	3,866	4,138	4,114	4,931
상품수입	5,988	7,262	7,318	7,141	8,028
외환보유액	1,805	2,387	2,912	2,648	2,807
총외채	12,958	16,611	17,417	19,061	22,235
총외채잔액/GDP	61.7	71.8	74.7	78.0	79.6
D.S.R.	16.5	17.8	14.0	26.1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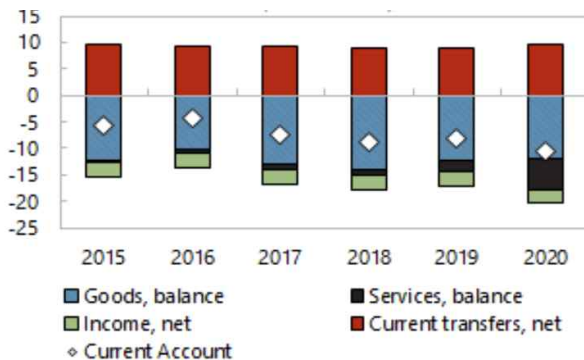
자료: IMF, EIU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와 자본재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코로나 19의 여파로 세네갈의 주요 산업인 관광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서비스수지 적자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2020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8.8%) 대비 현저히 증가한 -12.0%(IMF 추정치, IHS Markit는 -10.6%로 추정)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3년 원유·천연가스의 본격적인 생산으로 수출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전까지는 에너지 부문의 개발과 2022년 하계 청소년올림픽(Youth Olympic Games: YOG) 개최 준비를 위한 자본재 수입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경상수지는 계속 큰 폭의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경상수지 주요 구성요소(2015~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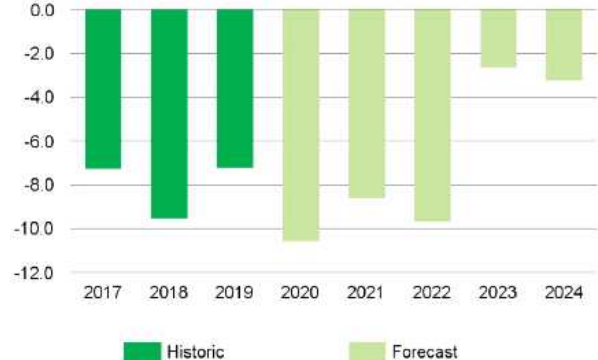
(단위: %, GDP 대비 비중)



자료: IHS Markit

GDP 대비 연도별 경상수지 추이 및 전망(2017~24년)

(단위: %)



자료: IHS Markit

대외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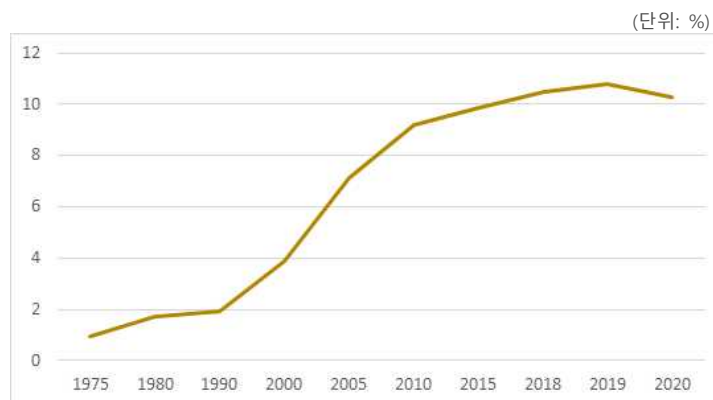
2021년 6월 7억 7,500만 유로 상당의 유로본드 발행 성공

- 세네갈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보여준 지속적인 고성장과 정치적 안정, 그리고 2023년 예정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이로 인한 높은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2021년 6월 2일 7억 7,500만 유로 규모의 유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음. 발행조건은 16년 만기에 고정금리 5.375%임.
- 정부는 해당 채권으로 2024년 만기 예정인 유로본드의 70%를 차환하여 향후 원유·천연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계획임.
- 세네갈은 앞서 2011년(5억 달러), 2017년(11억 달러), 2018년(22억 달러)에 유로본드를 발행한 바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로부터의 송금 흐름은 원활한 편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해외 거주 세네갈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액은 2019년 5,540억 달러에서 약 20% 감소한 4,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GDP 대비 송금액 비중은 전년에 이어 10% 수준을 유지하였음. 이는 세네갈 정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유지를 위하여 해외 거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을 지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세네갈은 해외 거주 자국민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2018년부터는 GDP 대비 송금액 비율이 10~12%를 기록하고 있음.
- UNDP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전체 세네갈 가구의 32%는 해외에서 약 300달러의 금액을 연간 8회 가량 송금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세네갈의 GDP 대비 본국 송금액 비중 추이(1975~2020년)



자료: 세계은행

외채상환능력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총외채잔액 규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부채 관리가 필요

- 2021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세네갈의 외채규모는 약 27억 8,900만 달러(단기 5,800만 달러, 중장기 약 27억 3,100만 달러), 연체액은 830만 달러로 연체비율(약 0.3%)을 감안할 때 세네갈의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편으로 평가됨.
- 그러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8년 71.8%, 2019년 74.7%에서 2020년 78%로 상승하였고, 2021년에는 79.6%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은 코로나19로 인한 총수출 급감*에 따라 2019년 14%에서 2020년 26.1%로 급상승하였음.

* 총수출 증가율: 2018년 16.3%, 2019년 4.8%, 2020년 -8.6%

- IMF는 세네갈의 외채 수준을 적정한 편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더딘 백신 접종 속도*,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이 불확실한 점으로 미루어 정부의 재정 및 부채 관리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세네갈 정부는 올해 2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2022년 1분기 말까지 전체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7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3.8%만이 1차 접종을 마쳤고 접종 완료자의 비율도 1.6%로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편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채무상환 유예 및 자금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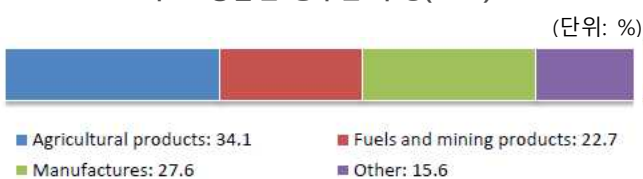
- 코로나19에 따른 교역 위축, 세계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주요 외화 소득원이 급감한 가운데 보건, 의료, 저소득층 지원 등에 필요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여 최빈국들의 외환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G20, IMF, 세계은행 등은 최빈국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을 일부 유예하고 긴급자금을 지원 중임.
- G20는 세네갈을 포함한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2021년 말까지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를 통하여 채무상환의 한시적 유예 혜택을 제공함. DSSI는 2020년 5~11월 동안 원리금 약 300억 세파프랑(GDP의 0.2% 수준)과 이자 60억 세파프랑의 상환을 유예해 주었으며, 최근 만료일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로 연장함에 따라 원리금 910억 세파프랑(GDP의 0.6% 수준)과 이자 190억 세파프랑의 상환을 추가적으로 유예해 주었음.
- IMF는 2020년 4월 4억 4,200만 달러의 신속금융제도(Rapid Financing Instrument: RFI)를 승인하며 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6월 6억 5천만 달러의 대기성차관협정(SBA)과 신용거래협정(SCF)을 승인하며 1억 8,700만 달러의 즉시 지급이 가능해짐.
- 세계은행은 세네갈을 대상으로 22개의 투자 사업(총 22억 달러 규모)과 9개의 지역 프로젝트(총 3억 4,650만 달러 규모)를 진행 중임. 해당 사업은 농업, 농촌 개발, 인프라, 교통, 공공 및 민간 부문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음.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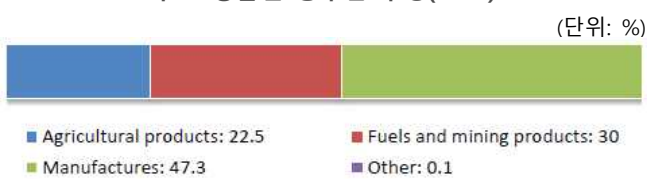
농업, 광업 등 1차산업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세네갈 경제는 농업, 어업, 광업 등 1차산업과 건설업, 관광업 등의 서비스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며, 재정수입도 농수산물과 광물자원 등 1차산업의 수출, 재외국민 송금 및 해외원조 유입 등에 의존하고 있음.
- 2018년 기준 상품수출 구성은 농산물 34.1%, 제조품 27.6%, 연료 및 광물 제품 22.7%, 기타 15.6%로 집계됨. 한편 2018년 기준 상품수입 구성은 제조품 47.3%, 농산품 22.5%, 연료 및 광물 제품 30%, 기타 0.1%로 제조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세네갈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index)에서 2018년 기준 152개국 중 106위를 기록하였음. 항목별 비중은 자원기반(74%), 중간기술(12.6%), 하위기술(11.3%), 고기술(2%) 순으로 자원기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세네갈의 산업개발이 여전히 1차산업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 농업 부문은 2017년 기준(추정치) GDP 대비 16.9%로 산업(24.3%), 서비스업(58.8%)에 비하면 비중은 가장 낮지만, 고용의 77.5%를 담당하며 세네갈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세네갈은 아프리카 주요 땅콩 생산국으로, 땅콩은 '세네갈의 황금'으로 불릴 정도로 농업 수출의 23%, 인구의 40%를 고용하며 국민에게 중요한 수익원이자 식량이 되고 있음.

주요 상품별 총수출 구성(2018)



주요 상품별 총수입 구성(2018)



전력,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과 취약한 산업기반

- 도로, 통신, 전력 등 기본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성장기반이 취약한 점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국내 산업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세네갈은 세계은행의 2021년도 기업경영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190개국 중 전력공급 부문에서 119위(종합순위 12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2019 보고서에서는 조사대상 141개국 중 인프라 부문 113위, ICT 채택 부문 115위, 기술 부문 124위(종합순위 114위)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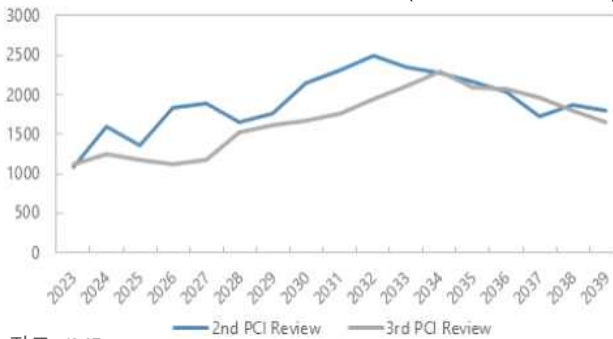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2023년 중 원유·천연가스 본격 생산 개시 기대

- 소규모 천연가스 생산국이었던 세네갈은 2014~17년 상당한 규모의 원유 및 천연가스가 발견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함.
- 주요 프로젝트인 Sangomar(원유)와 Grand Tortue Ahmeyim(천연가스)는 2023년 생산 개시 예정임.

세네갈 원유·천연가스 생산의 GDP 기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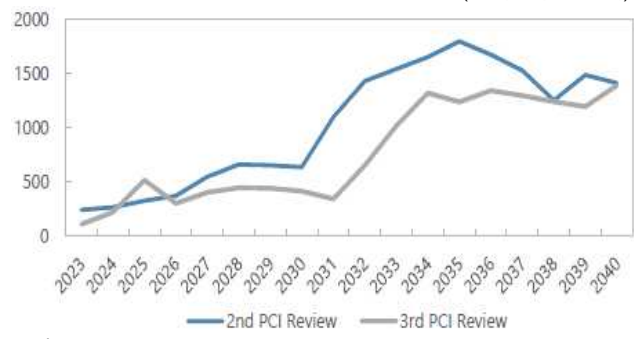
(단위: 십억 세파프랑)



자료: IMF

세네갈 공공부문의 원유·천연가스 수익 전망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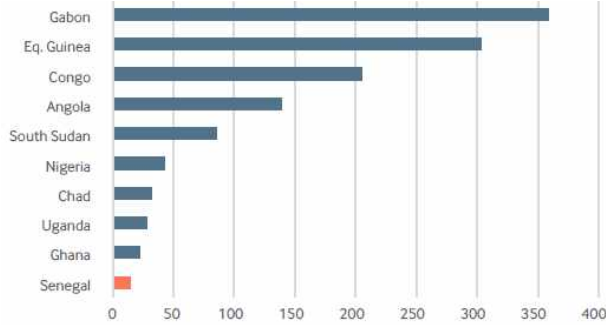
자료: IMF

- 그러나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가 지연될 가능성과 세네갈 정부의 천연자원 활용 및 세수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현재 2023년으로 예정된 원유·천연가스 생산 개시 시점은 원래 목표였던 2021년에서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으며, 세네갈 정부의 원유 생산 경험이 전무한 점으로 미루어 원유 생산 개시가 20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20년 국제유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지난 20년래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한 전망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는 향후 원유 및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감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세네갈 정부는 원유·천연가스 개발로부터 마련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2016년 석유·천연가스 전략위원회(Cos-Petrogaz)를 설립하였으며, 원유(2019년)와 천연가스(2020년)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병행 중임.
- 세네갈의 인구 1명당 원유·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60배럴 수준임.
- 세네갈 인구 1명당 원유의 추정 및 채굴가능 매장량은 약 15배럴로 아프리카 원유 부국인 적도기니, 가봉, 콩고, 앙골라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임. 천연가스의 경우 1명당 45BOE*로 원유보다 중요성이 더 높음.

* BOE: 석유환산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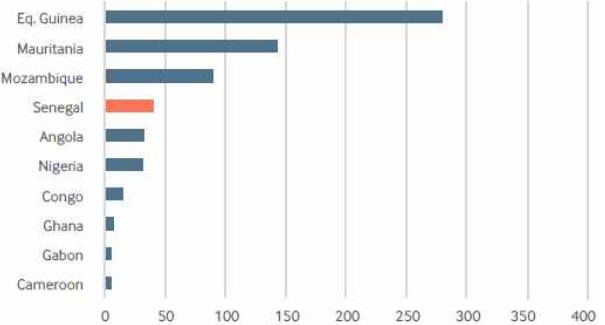
성장잠재력

아프리카 주요국 원유 매장량(추정 및 채굴가능)
(단위: 1인당 배럴)



자료: Davis & Mihalyi, 2021(Rystad, 2020 재인용)

아프리카 주요국 천연가스 매장량(추정 및 채굴가능)
(단위: 1인당 B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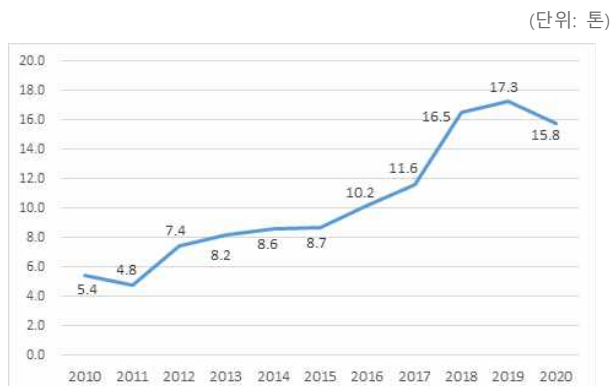


자료: Davis & Mihalyi, 2021(Rystad, 2020 재인용)

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증대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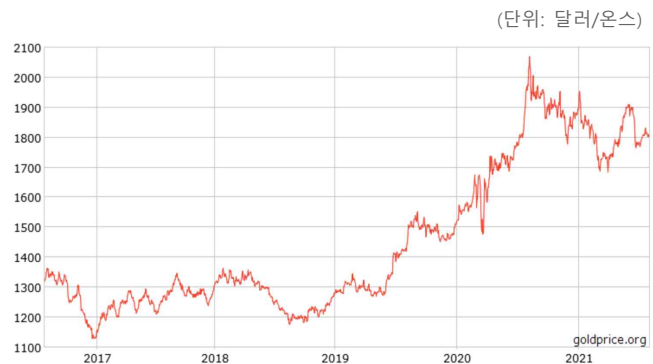
- 서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금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2019년 서아프리카 금 생산량은 총 366.9톤으로, 세계 제1의 금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383.2톤)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임.
- 서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금 생산국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가 전쟁 및 테러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으로 금광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자 해외투자자들이 주변국인 세네갈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또한, 코로나 19로 인하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투자 피난처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의 국제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함.
- 세네갈의 금 생산량은 지난 10년 간 꾸준히 증가함. 특히, 세네갈 금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Sabodala-Massawa 광산의 경우 2021~25년 중 생산량은 2020년 대비 67.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금은 2020년 기준 세네갈 상품수출의 18.6%를 점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바(2위 원유(15.5%), 3위 어류(7.58%), 4위 인산염(6.7%)), 금 생산 및 수요의 꾸준한 증가는 순수출 증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됨.

세네갈 금 생산량 추이(2010~20년)



자료: World Gold Council

금 국제가격 변화 추이(2017~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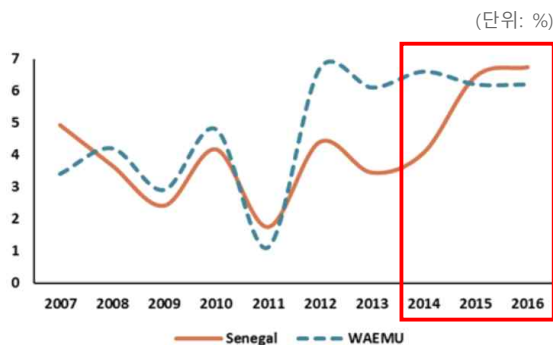
자료: Goldprice(goldprice.org)

정책성과

국가·사회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SE) 1기의 성공적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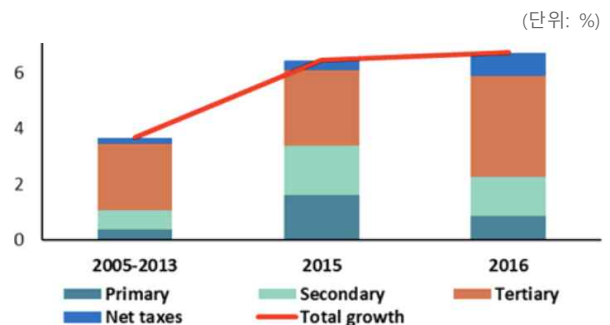
- 세네갈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2035년까지 사회적 연대와 법치에 기반한 신흥시장국(emerging market country)의 지위를 획득코자 중장기 국가·사회개발계획인 세네갈 부흥계획(PSE)을 추진 중임.
- PSE는 1)경제 및 성장구조 개편, 2)인적자본, 사회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3)거버넌스, 제도, 평화 및 안보 등을 목표로 1기(2014~18년)와 2기(2019~23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 중임.
- PSE를 통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농업 개발, 민간 소비 증가 등으로 1기(2014~18년) 중 연평균 6.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이는 PSE 시행 이전인 2011~14년 연평균 성장률의 1.8배 증가한 수준임.
- PSE 1기는 특히 교통 및 전력 인프라 분야 개선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¹⁾
 - (인프라) 신고속도로 개통(2018.12); 다카르 신공항 개통(2017.12); 다카르 고속열차 개통(2019.1)
 - (전력생산량) 2012년 500MW에서 2018년 1,141MW로 증대
 - (농업) 벼(paddy rice) 생산량은 2012년 469,649톤에서 2017년 1,011,269톤, 땅콩 생산량은 2012년 692,572톤에서 2017년 1,405,233톤으로 각각 증대
 - (산업) 지암나지오(Diamniadio) 신도시에 특별경제구역과 산업 신도시 설립 결정

PSE 시행 후 세네갈 GDP 성장률 변화



자료: 세계은행

PSE 시행 후 세네갈 산업별 GDP 기여도 변화



자료: 세계은행

1) 외교부. 2020. 세네갈 개황, pp. 53~55.

정치안정

2019년 2월 Sall 대통령 재선 성공

- 2019년 2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Macky Sall 대통령은 58.2% 득표율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하였음.
- 2012년부터 재임 중인 Sall 대통령은 2016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3선 연임을 제한하였으나, 이 제한이 대통령의 2012~19년 임기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시하지 않아 향후 2024년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다분함.
-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Ousmane Sonko)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하였으며(이후 석방), 야당의 유력 후보 2명(Karim Wade, Khalifa Sall)을 부정부패 혐의로 대선 출마에 배제하였음. 이로 인해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올해 3월까지 최소 5명이 사망함.
- 반정부적 정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PSE 1기 개발전략과 높은 경제성장률(평균 6% 이상), 농공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반군 세력인 카자망스민주세력운동(MFDC)의 진압 등은 Sall 대통령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 Sall 2기 정부는 '포용적인 새 정부'라는 지지를 내걸고 내각 구성에 영향력 있는 야권 인사들을 포함하였으며, PSE 2기 추진과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 중임. 그러나 격화된 반정부적 정서와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낮아진 신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음

- 세네갈은 1960년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 현재까지 군사정변 없이 민주적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유지하며 아프리카 내 민주주의 모범국으로 평가받음.
- 세네갈은 모이브라힘 재단의 아프리카거버넌스지수(IIGA)²⁾에서 안보와 법규, 투명성, 책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아프리카 54개국 중 9위를 차지함.
- 2020년 EIU의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평균 5.67점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44개국 중 10위, 전체 167개국 중 86위를 차지함.
- 빈곤 및 실업은 향후 정치적 안정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Macky Sall 2기 정부의 사회, 경제 및 산업개발을 위한 정책의 지속적 시행은 해당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2020 EIU 민주주의 지수³⁾

선거 과정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6.08	5.71	4.44	6.25	5.88

2) 2007년부터 매년 아프리카 대륙 54개 국가의 안보, 공정성, 권리, 경제적 기회, 의료 등 다양한 부문의 거버넌스에 대하여 측정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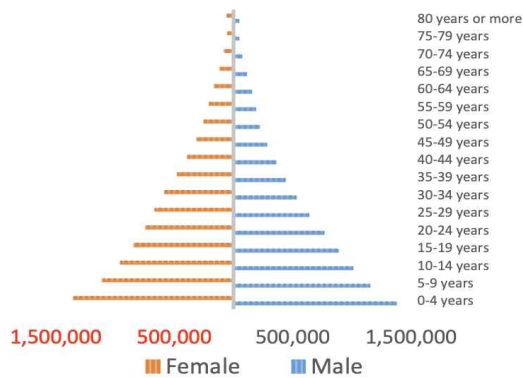
3) EIU 민주주의 지수는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영역으로 구성되며, 선거과정과 다원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를 실시하고 정치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함.(10점 만점, 높을수록 민주주의 정도가 높음)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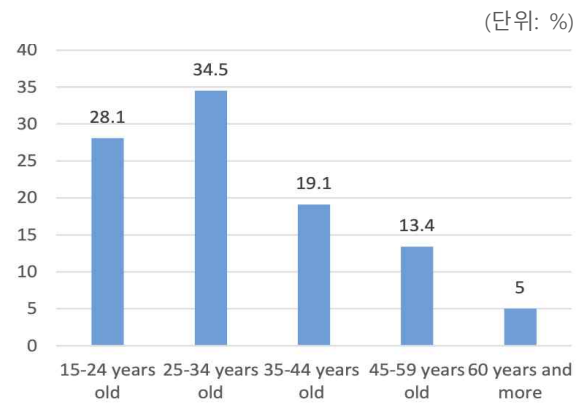
아프리카에서 청년층 인구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나 잠재적 인적자원 개발은 여전히 미흡

- 높은 출생률(여성 1명당 4.5명)과 대가족에 대한 선호로 청년층 인구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인구의 약 60%가 25세 미만이며, 노동인구는 매년 20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증가하는 청년실업률과 빈곤율로 인하여 세네갈 청년들의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며, 이는 청년층의 반정부 정서를 격화시켜 전국 단위의 반정부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음.
- 전체 노동인구 중 10%만이 공식적으로 고용된 상황이며, 전체 실업률 중 청년실업이 1/3 이상을 차지함. 또한, 노동인구 중 숙련된 노동자 비율은 10.8%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이에 정부는 청년층 실업률의 완화를 목적으로 2021년 4월 긴급 청년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를 통해 2021~23년의 3년 간 GDP의 3% 수준인 4,500만 세파프랑을 1)고용 창출, 2)기술적 직업훈련, 3)교육, 4)개인사업자 자금 지원에 투입할 예정임.

세네갈의 연령별 인구분포



세네갈의 연령별 실업률



최근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 세네갈은 2020년 UNDP 인간개발지수(HDI)에서 전체 189개국 중 168위로 최하위권에 속하였으며, 절대 빈곤층(소득 1.9달러/일 미만)의 비율은 38%에 달함.
- 교육수준은 평균 정규(학교)교육 기간이 3.2년(여성 1.9년, 남성 4.6년), 문자해독률은 약 48%로 낮은 수준임.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이 전체 고용의 85%를 차지하며, 가계소득은 유럽 등 외국에 취업한 노동자들의 본국 송금에 크게 의존하는 편임.
- 특히 빈곤은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세네갈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인 관광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전체 가구의 8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하였고 최소 30만 명이 빈곤에 내몰린 상황임.

사회안정

정부군의 남부 카자망스(Casamance) 지역 분리주의 반군 기지 점령

- 1970년 이후 경제난과 가뭄으로 인해 북부의 Wolof 부족 주민들이 토지가 비옥한 남부 카자망스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토착민인 Diola 부족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1980년대 들어 카자망스 지역의 항구 도시 Ziguinchor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었음.
 - 1990년 카자망스의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카자망스 민주세력운동(MFDC)이 결성되고, MFDC는 무장 반군을 조직하여 1992년 8월 대정부 게릴라전을 시작하였음.
 - 올해 6월 세네갈 정부군의 카자망스 지역 분리주의 반군(MFDC)의 주요 기지를 점령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된 게릴라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아짐. 동 작전은 기니비사우 국경을 따라 진행되었으며 인접국들은 MFDC의 보급선 및 퇴각로 차단을 도움.
 - 상황이 유리해짐에 따라 Sall 대통령의 MFDC 대한 군사적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MFDC는 감비아 전 대통령 Yahya Jammeh의 축출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잃었으며 기니비사우*와도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 세네갈 정부군은 기니비사우의 협력으로 2021년 1~2월과 5~6월 반군을 기지에서 추격할 수 있었음.
- 이밖에도 최근 말리 남서부 지역의 알카에다 연계 조직들이 세네갈 국경을 향하여 진격함에 따라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의한 테러 공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카자망스(Casamance) 지역



사회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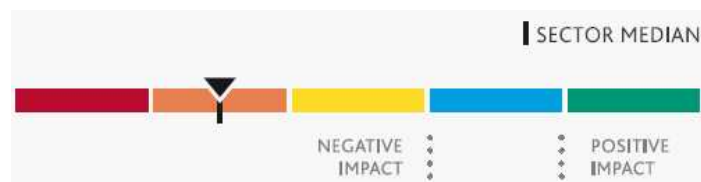
Moody's는 세네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

- Moody's는 세네갈의 높은 부채와 낮은 부(wealth)의 수준이 환경 및 사회적 회복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점과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점을 미루어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년 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열 스트레스(heat stress)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식수에 노출되어 있어 수질의 위험도 매우 높은 편임. 또한, 전체 고용의 30%가 농업 부문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환경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를 더욱 심화하는 바, 환경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높은 총부양비와 낮은 중등교육 등록률을 포함한 취약한 교육 지표, 낮은 전력 사용량(전체 인구의 67%) 등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출이 매우 높은 편이며, 높은 비공식경제 부문의 비중(전체 고용의 65%)은 가계의 해외 노동자로 송금 의존도를 높임. 이에 따라 사회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정책 협력 프로그램과 IMF의 기술적 지원으로 시행한 지배구조 개혁, 세계은행의 세계지배구조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서 보여준 부패 관리와 정치 안정성 부문의 견고한 순위를 바탕으로, 지배구조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3등급)으로 평가됨.

세네갈의 ESG 신용영향평가점수



자료: Moody's

세네갈의 ESG 요소별 점수



자료: Moody's

국제관계

과거의 식민종주국인 프랑스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국 등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모색 중

- 세네갈은 국민의 약 96%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지만 146년 간의 프랑스 식민 통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서부 아프리카 프랑스어권 국가 중에서 프랑스와 가장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프랑스는 세네갈의 최대 수출상대국이자 수입상대국인 동시에 세네갈에 대한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경제, 금융, 군사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함.
- 올해 3월 프랑스개발청(AFD)은 세네갈에 대해 2,500만 유로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직업훈련센터 건설 지원을 발표하였고, 6월에는 프랑스 대외통상장관이 방문하여 세네갈산 상품의 프랑스 수출 확대, 코로나19 백신의 세네갈 국내 생산, 민간 부문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함.⁴⁾
- 1974년 3월 프랑스와 군사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다카르 인근에 프랑스 육·해·공군 기지를 두고 있음.
- 프랑스 정보당국은 2016년 초 알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단체의 세네갈 공격을 경고한 바 있으며, 프랑스 내무부와 보안국 관계관이 다카르에 상주하여 기술, 물류, 테러 대응 관련 지원을 제공함.
- 통신, 대형 유통업, 은행, 건설, 항만, 호텔 및 관광 등 세네갈의 서비스 부문에 다수의 프랑스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입찰, 수출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음.
- 프랑스의 대표적인 에너지기업 Total은 2017년 5월 세네갈 Rufisque Offshore Profond(ROP) 유전 블록 지분의 90%를 획득하였음.
- 이처럼 세네갈과 非아프리카 국가 간 관계에서 프랑스는 여전히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미국이 중점협력국으로 부상 중임.
- 2019년 서아프리카 경제·통화연합(UEMOA) 8개국에서 사용 중인 공용화폐 세파프랑(CFA Franc)을 新공용화폐인 에코(Eco)*로 대체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자 함.
- 세네갈은 외환보유고의 절반을 프랑스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프랑스 재무부로부터 매년 0.75%의 금리와 자국 통화에 대한 보증을 받아왔으나 에코가 출범되면 해당 의무조항은 폐지될 예정이며,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과 프랑스의 무제한 태환성 보증은 유지할 계획임.

* 에코는 당초 2020년 말 출범 예정이었으나, 2020년 초 서아프리카 6개국(감비아,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의 단일통화 이름으로 Eco 사용 결정에 대한 반대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출범이 2027년으로 연기된 상황임.

4) 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프랑스 대외통상장관, 세네갈 실무방문"(2021.6.2.); "프랑스개발청(AFD), 모빌리티 산업 직업훈련센터 건설 지원(2021.3.26.).

국제관계

역내 회원국 및 인접국과도 평화유지 활동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

-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1975년 창설), 아프리카연합(AU, 2001년 창설), 서아프리카 경제통화동맹(WAEMU/불어로는 UEMOA, 1994년 창설)의 회원국으로 해당 지역협력체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세네갈은 ECOWAS의 창립 회원국으로 과거 코트디부아르 내전(2002~08년)과 라이베리아 내전(2003~08년)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현재도 말리에 평화유지군을 파견(2017년~)하는 등 역내 평화유지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특히, 카자망스 지역과 근접한 감비아와 기니비사우와의 협력 관계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임.
- 세네갈 영토 내부에 위치한 감비아와의 관계는 감비아의 독재자 Yahya Jammeh 대통령이 2017년 1월 세네갈 주도의 군사적 개입으로 축출되고 Adama Barrow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급속히 개선되었음. 2017년 3월에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으로 정상회담을 정례화하였고 현재는 대규모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통하여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음.
- 기니비사우와는 1998년 내전에 병력을 파견하며 개입하였으며, 2003년 쿠데타 발생 당시 세네갈의 압둘라이 와드(Abdoulaye Wade) 대통령이 민간 정권 이양을 중재한 바 있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 및 최근 카타르와도 관계 강화

- 세네갈은 2015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함께 예멘 내전에 개입, 병력을 파견하며 지원하였고, 2017년 8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대 카타르 단교 사태*에도 합류하였음. 이를 통해 세네갈 정부는 PSE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산유국들로부터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에 의한 침투 및 테러 활동에 대한 대응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지원도 받음.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외교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올해 6월 28일에는 세네갈 대통령이, 이어 7월 1일에는 세네갈 외교장관이 세네갈 주재 카타르 대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에 대하여 논의함.
- * 2017년 6월 카타르가 이란 및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고 테러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바레인 등 아랍 지역의 일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카타르와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여타 지역의 일부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도 동참함. 그러나 올해 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3년에 7개월 만에 영공과 육로, 해상 국경 개방에 합의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걸프 국가들의 외교 위기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중임.

외채상환태도

파리클럽으로부터 공적채무 탕감 수혜

- 세네갈은 파리클럽으로부터 2차례(2000년 10월 2,200만 달러, 2004년 6월 1억 2,700만 달러) 공적채무를 탕감 받음. 이는 인근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임. 2004년 이후 외채탕감 경험은 없음.

G20로부터 채무 리스케줄링 수혜

- G20은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급박한 유동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무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발족하여 모든 양자간 공적대출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했으며, 최근 해당 기간을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함. 이에 따라 아프리카 DSSI 수혜국인 세네갈은 단기상환 부담이 유예되면서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 G20의 채무유예 대상국은 최빈국(73개)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총 46개국, 약 57억 달러(한화 약 6조 3,300억 원) 부채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 (2021.05)	5등급 (2020.10)
Moody's	Ba3 (2021.02)	Ba3 (2020.10)

OECD, Moody's 모두 신용등급 유지

- OECD는 2021년 6월 CRE 회의에서 세네갈에 대해 기존의 5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Moody's는 2017년 4월 신용등급을 B1에서 Ba3로 상향 조정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코로나19 이전까지 보여준 정치적 안정과 PSE 시행 후 높은 경제성장의 지속은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부채 부담 가중을 고려하여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함.

- 세네갈 경제는 국가·사회 개발을 위한 세네갈 부흥계획(PSE) 1기의 추진 결과로 지난 6년간(2014~19년) 연평균 6~7%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관광, 교통 및 물류 부문의 침체와 수출 정체로 성장률이 0.8%로 급락함. 2021년에는 PSE 2기 추진, 천연자원 개발, 2022년 하계 청소년올림픽 준비로 인한 인프라 투자 및 건설 확대와 금 생산 및 수출 증대 등을 통하여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유·천연가스 생산이 예정된 2023년부터는 이전보다 높은 연평균 9%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9년 1%에서 2020년 2.5%로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안정적인 편임. 외채규모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최근 G20가 공적 대출을 대상으로 한 채무상환유예(DSSI)기간을 올 연말까지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부의 단기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해짐. 단, 국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지출의 증가로 국가부채 규모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 바, 부채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PSE 1기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정부의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 빈곤 심화 및 청년실업 문제 악화는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키며 반정부 감정의 확산을 불러일으킴.
- 2019년 대선 전 발생한 야권 인사 체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바, Sall 대통령의 3선 출마가 확정될 경우 정치·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